

# 한화석유화학, 김승연 회장 복귀

## 7년만에 공동 대표이사로 재선임 ... 홍기준 사장과 공동경영

한화석유화학은 3월20일 이사회를 열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한화석유화학은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김승연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김승연 회장은 1997-2002년 말까지 한화석유화학의 대표를 맡았다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뒤 대한생명 대표 이사회장을 맡으면서 금융업법상 금융기업 대표는 다른 업종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어서 사임했다가 7년 만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한화석유화학은 김승연 회장과 홍기준 대표이사의 공동대표 체제가 됐다.

김승연 회장은 2008년 9월 한화를 비롯해 한화건설, 한화L&C, 한화테크엠, 한화갤러리아 등의 계열사 주주 총회에서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화석유화학은 이와 함께 한상흠 지원부문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정인현 사외이사는 유임시켰다.

또 이진규 노동부 노동연구원 운영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0>